청산 못한 일제잔재 어떻게 할것인가

일제치하 36년간 한국불교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사찰재산을 침탈당하고 각종 제도와 형식이 '일본화'되는 치욕을 당했으며, 적지 않은 불교 인사들이 친일행위를 함으로써 극도의 내우외환을 겪었다.

8월 15일은 그 압제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난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 60주년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립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인식 부재 속 정체성 못 찾아

종단체제는 아직도 94년전

#교구본사 중심 체제 구축

'교구본사 중심 본말사 체제'는 일제가 한국불교에 남긴 가장 큰 흔적 중 하나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시행하면서 '본말사 체제'를 갖춰 나갔다. 이전까지 특별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됐던 사찰들이 30개 본사와 예하 말사로 구성된 '본말사 체제'에 편입된 것이다.

조계종의 현 25개 교구본사 중심 본말사 체계도 바로 1911년 일제가 공포한 사찰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제는 여기에다 사찰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사찰 운영의 내규인 사법(寺法)을 제정해 사찰 운영의 틀을 구축했다.

사찰령 등의 제정 이유는 본사 주지를 통한 한국불교 통제권 장악이다. 일제는 주지에 대한 인사권과 사찰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해 한국불교를 식민 통치에 이용하려 했다. 한국불교는 일제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받았다.

본말사 체제를 종교적 차원이 아닌 행정편의적으로 개편한 것은 한국불교를 관료화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본사 주지에게 인사권과 재산권이 집중됐으며 승가의 지계정신과 개혁의지는 크게 쇠퇴했다. 대중에게 봉사하는 직책인 주지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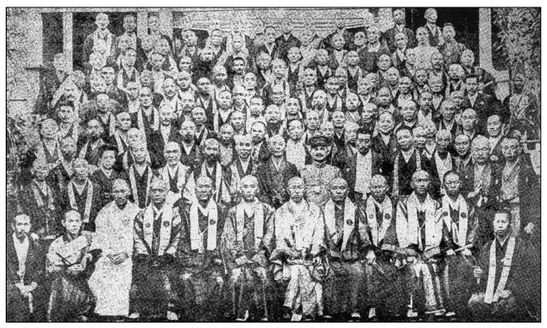
산중공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큰 손실이다. 대중의 의견에 따라 사찰의 일을 결정하던 산중공의제도는 주지가 일본 관리의 임명을 받으면서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 게다가 사찰령은 대처(帶妻) 제도를 합법화해 훗날 비구 대처 분쟁의 원인이 됐다.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차장은 "산중총회법, 총림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중공의제도는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하지만 과도한 주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국가 행정체계의 변화에 맞도록 교구본사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할 부분이다.

#불교 재산 대거 망실

임야 농지 등 불교 정재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사찰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사찰령이 규정한 재산제도는 주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기형적인 것이다. 일제가 친일적인 주지에게 재산 관리권을 부여하고 1926년 대처식육(帶妻食肉)을 허용하도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구하 스님 등 본사주지들의 1917년 일본시찰 기념사진. 30본사체제는 일제가 한국불교를 식민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체제로 알려졌다.

조선불교 조계종이 1942년 헌금을 모아 일제에 기증한 전투기 '조선불교호'.

식민통치위해 사찰령 공포…관료화 심화
혼란기에 사라진 사찰토지 되찾기 나서야

록 사법(寺法)이 개정되면서, 처첩을 거느린 주지가 불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넘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완벽하지 않은 재산권 제도는 해방 이후 정화 사태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결국 불교 정재의 대대적인 망실로 이어졌다.

조종래 前 조계종 총무국장은 "정화 때 사라진 불교재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교육과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찰 재산을 사사로이 팔아버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또한 100여 곳에 달한 일본사찰들의 재산이 온전히 한국불교로 이전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제시대 등 혼란기에 사라진 사찰 정재에 대한 연구가 종단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정교분리 원칙 훼손

조선왕조의 탄압을 받아 산으로 쫓겨난 한국불교는 일제시대에도 자주적 종단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일제가 한국불교를 어용화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불교계 스스로가 자주적 종단건립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수많은 스님들이 쉽게 친일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해방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불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에 박수를 쳐주고 이른바 '기도법회'를 열어주었다. 비구승에 의한 '정화'가 이승만 정권의 유착 속에서 진행됐으며, 5·16 이후 통합종단의 출현과 분쟁, 10·27법난 등도 정치권 변화에 따라 한국불교가 어려움에 빠진 모습들이다. 1980년대 한국불교는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고 각종 호국법회를 통해 군사정부에게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불교계가 사법부 등 외부에 의존해 불교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정부보조금 등 정부에 의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한국불교의 자립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단 난립

수많은 종단들의 난립 현상도 일제가 한국불교에 남긴 상처다. 일본불교의 영향인 대처승 제도가 해방 이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한국불교는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맛보게 됐다.

이후 종단은 분열과 창종을 거듭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종단처럼 종지 종풍 종조 소의경전 수행법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단 창립은 '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일제 시대부터 활동하던 불교단체들이 종단등록을 하면서, 종단 숫자는 18개로 불어났다. 불교적 종단관이 뚜렷지 않은데서 탄생한 종단은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이후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만도 26개에 달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단까지 합한다면 무려 200여개의 종단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정체불명의 종단들이 불교 이미지를 흐리는 일은 이런 데서 연유한다.

한국불교종단협 김석오 총무차장은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비불교적인 종단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용을 할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종지 종풍을 가진 종단들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강유신 기자

日에 있는 우리 문화재

10만여점 추정, 대부분 소재 파악조차 안돼
"연구라도 하자" 국제적 관심 유도해야

지난 6월 18일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는 고려불화 한 점이 소개됐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7천여 위의 작은 불상을 배치한 독특한 형식을 갖춘 이 불화는 고려불화 분야의 권위자인 정우택 동국대교수(불교미술)가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서 찾아냄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다.

일본 도쿄 대창집고관(大倉集古館)에 소장돼 있는 고려후기 건칠불좌상. 사진제공=임석규

이번 발견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한국의 불교문화재가 일본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야말로 불교계의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줬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장처가 확인된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20개국에 7만5천여 점. 이 중 3만5천여 점이 현재 일본에 있다.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만여 점이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약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논리와 주장만으로 약탈문화재를 되찾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 보면, 반환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한국불교문화재 실태조사 및 학술적 연구가 절실하다.

일본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재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소장 문화재가 사라져버려도 알 방법이 없다.

정병모 경주대 교수(문화재학)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 못지않게, 멸실될 우려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의 협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외문화재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조사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7만5천여 점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현지조사한 수량은 7천여 점에 불과하다.

또 소장처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교문화재에 집중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만족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조사 가운데 불교문화재를 집중 조사한 것은 1995년 일본 나라 및 교토 지역 박물관과 사찰 1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불화 41점을 조

7면으로 이어짐

불기 2549년 불교성지순례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중국 오대산(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원 및 소원성취 대법회 봉행

요금 ~~₩860,000~~ ₩699,000 (3박4일) ~~₩960,000~~ ₩749,000 (4박5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문화탐방 ₩699,000(3박4일)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오대산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응현목탑-1056건립(중국 최고의 목탑)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 출발일(2005년)
1차 : 8월 20일 ~ 8월 24일(4박5일)
2차 : 8월 24일 ~ 8월 27일(3박4일)
3차 : 8월 27일 ~ 8월 31일(4박5일)
4차 : 8월 31일 ~ 9월 03일(3박4일)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신 청 금 : ₩100,000
■ 입금구좌 : 우리은행 006-173407-13-048 예금주 한진관광
■ VISA요금 : ₩24,000 별도
■ 담 당 자 :
한진관광 본사 이기범 차장 TEL. 02-726-5799
한진관광 부산지점 김문철 과장 TEL. 051-463-2115
한진관광 마포대리점 차명철 팀장 TEL. 02-717-8085
불교방송 성지순례 담당 최효상 TEL. 02-705-5302

특전
수험생 학부모에게 문수보살호신불 증정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과 명상캠프(3차)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아제여행사 730-4008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중국 산서성 여유국 /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4박 5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동대 망해사 순례후 점심공양 중대(지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현통사, 탑원사, 대라정(케블카) 점심공양후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흥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중 석	호텔식
				HOTEL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3박 4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현통사, 대라정(케블카) 순례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흥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중 석	호텔식
				HOTEL		

※상기 일정은 출발 당시 항공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불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정한 독립은 그 잔재를 벗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단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내면화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자는 의미다. 따라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종단, 문화재, 사찰 조경, 불교학 등 네 분야를 통해 짚어본다.

청산 못한 일제잔재 어떻게 할것인가

정신적 '잔재' 부터 뿌리 뽑아야

6면에서 계속

사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하는 국내 개별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직접 해당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연구자료를 축적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그리 여의치 않다. 특히 일본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미술사)는 "한 · 일 양국의 국립박물관이나 공공기관 사이에 협력은 원만한 편이나 일본 사찰은 폐쇄적이어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양국 불교계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1997년 한 · 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도 일본사찰에 있는 한국문화재 실태조사에 관해 협의한 바 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 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 일 불교계가 불교미술을 공동연구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다.

일본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미술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증가하는 셈이다. 신대현 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술사 연구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량"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증가하면 불교미술 이론 정립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한 · 일 불교미술교류관계 확인함으로써 한국불교미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동아시아불교미술사 정립하며 나아가 한 · 일 불교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공동연구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익순 기자

늘어나는 일본풍 사찰조경

전통사찰의 미학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아
정원 · 연꽃 · 분수 · 자갈마당 등 日서 수입

일본식으로 관상수 다듬어놓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명찰 경북의 B사, 탑 둘레로 잔디를 심어 '예쁘게' 화단을 가꿔놓은 경북의 W사, 절 입구 길목 양편을 왜식으로 꾸며놓은 B사와 W사, 최근 일본식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분수까지 만들어놓은 경기도 B사….

사찰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일본식 조경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 사찰 조경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웅전 앞마당 정원 조성 △가이스카향나무, 갸라목, 노무라단풍 등의 일본품종 식재 및 가위로 다듬기(剪定) △일본식 연못 및 자갈마당 조성 등 대표적인 일본식 조경의 예로 꼽히는 풍경들은 이제 전국 어느 사찰에 가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그야말로 어느 것이 우리 것이고, 일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한국사찰은 건축지향적이고 일본사찰은 조경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 영향으로 일본사찰은 오밀조밀하게 정원을 가꾸고 인공미를 가미하는 데 반해, 한국사찰에는 대웅전 마당에 꽃과 나무를 도입하지 않을 정도로 정원이 강조되지 않는다.

정원보다는 자연과의 조화가 한국 사찰 조경에서는 화두인 셈이다. 이는 왕궁도 마찬가지여서,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정원이 없다.

대웅전 주변에서 식물이 도입되는 유일한 곳은 화계(花階)다. 화계란 건물 터를 고를 때 옹벽과 화단을 겸한 기능을 갖는 구조물로, 건물과 건물, 건물과 자연을 연결하는 전이(轉移)공간으로서 나타난다. 화계에 주로 심은 것은 매화 산수유 목단 작약 등 유실수나 약초류로서, 관상수를 심지는 않았다.

하물며 가위로 나무를 다듬은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사찰은 예로부터 순수한 자연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해하고, 자연과의 동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나무 하나 없이 탁 트인 정갈한 대웅전 마당은 대중이 예불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징적인 조형물을 통해 자연이나 정토를 사찰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상징주의적이고 인공적인 조경이 발전함으로써 한국사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고산수(枯山水)정원이다. 네모난 정원에 흰 모래를 깔고, 크고 작은 돌을 배치해 산수를 표현하고 우주를 상징한 고산수정원을 통해 선적(禪的) 경지까지도 드러내고자 했을 정도다.

연못의 경우에도 일본식은 한국 전통양식과 상이하다. 한국의 전통 연못이 원형이나 장방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연못은 부정형(不定形)의 곡선을 이루고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또 일본식 연못 수면이 지면에 가까운 반면, 한국 연못의 수면은 지면과 깊이에 차이를 보인다. 연못에 분수를 두는 것도 전통적인 방식과 거리가 멀다.

마당에 자갈을 까는 것도 일본의 영향이다. 자갈마당은 일본 막부시대 쇼군의 집에 닌자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깔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일본식 조경은 한국의 고유한 자연과 건축,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미적 가치를 해치고, 한국사찰조경의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반적으로 전통조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사찰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전통미가 남아있어서 경주 불국사 · 영주 부석사 · 남양주 봉선사 · 화성 용주사의 석단과 남양주 봉선사의 화계가 옛 멋을 간직하고 있다.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전통조경학과)는 "우리 조경 방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보니, 사찰 조경이 예쁜 일본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자연의 순리를 따른 아름다움, 부처님의 가르침, 실용성이 담겨 있는 전통조경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법으로 정 교수는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찰관계자의 인식 제고 △주변정비사업시에 조경 개선 △조경시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리 절차 의무화 △조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제안했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조경학과 · 사찰조경연구소장)는 "우리 전통 조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개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 사찰 특성에 맞는 정갈한 아름다움을 속히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남양주 봉선사 화계. 한국 전통사찰의 화계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다. 사진제공=사찰조경연구소

일본 교토 료우이지(龍安寺) 방장선원의 후원. 전형적인 인공 조경의 예다.

경북 W사의 법당 앞뜰. 석탑 주위에 정원을 꾸민것은 한국불교 전통방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역수입되는 불교학

연구인력 저변 확대, 문헌학적 기초 세워야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 240년(1011~1251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제작된 <고려대장경>은 현존 대장경 가운데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꼽힌다. 한 마디로 한국불교 1천700년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 같은 자존심도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1925년 제작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불교학자들이 <고려대장경>보다 <대정신수대장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불교학자들이 <대정신수대장경>을 선호하는 것은 표점이 찍혀 있어 읽기 편한데다, 학자들 사이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이다. 뒷전으로 밀려난 <고려대장경>의 오늘은 일본불교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불교학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불교학이 일본불교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일본의 불교학 연구자가 2천500여명(인도학불교학회원 기준)인데 반해 한국의 불교학 연구자는 500여명(한국불교학회원 기준)에 불과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일본이 서구에서 배워온 것은 불교의 문헌을 발굴, 수집, 분류, 교감(校勘), 고증 주석하는 문헌학과 언어학적 방법론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치밀하게 인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불교학 관련 자료집성 · 색인 · 목록 · 사전류 편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일본은 <대정신수대장경> 외에도 <나카무라 불교어대사전(1974)> <망월불교대사전(1936)> 등을 간행했고, 대장경류만 해도 <일본대장경(1921)> <대일본불교전서(1922)> <국역대장경(1932)> <국역일체경(1933)> <남전대장경(1941)> 등의 엄청난 결과물을 쏟아냈다.

이런 참고자료들은 오늘날 국내의 불교학 연구자에게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불교학계의 눈에 띄는 성과로는 36년 걸려 완간된 <한글대장경(2004)>를 비롯해 지난해 7권이 나온 <가산불교대사림>과 14권째 발간된 <한국불교전서>, 그리고 전산화된 <고려대장경> 등을 꼽을 수 있는 정도다.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셈인데, 큰 원력을 세운 몇몇 선각자들이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딱히 내놓을 만한 한국불교통사 하나가 없는 현실이 우리 불교학계의 허약함을 보여 준다"며 "통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각론 연구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 지식의 원천이 서구 여러 나라로 다양화되고, 동국대 등에서 박사가 배출되는 등 자체적인 학문역량이 강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 일본불교학 편향성이 학계를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안양규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일본의 불교학이 훈고학적으로 흐르다보니 대중을 위한 용어 개선을 소홀히 하게 되고, 창조적인 새로운 시각이 나오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며 "일본불교학을 답습했던 한국불교학도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방 60년을 맞으면서 한국불교학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생태철학을 비롯해 생명윤리 · 낙태 · 사형 등 사회현안에 대한 답을 불교전통 안에서 찾아내기 위한 연구라든가, 또 인문학으로 연구되는 불교를 "불교 없는 불교학"이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범 스님의 승가학이나 신앙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의 체계불학 등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김성철 교수는 "한국 불교학의 활로는 전통불학의 부활이 아닌, 신앙 · 수행과의 결합에서 모색돼야 한다"며 "신앙과 수행이 종합된 진정한 불교학을 정립하는 것은 종파적 이해가 엇갈리는 일본불교학이 할 수 없는, 한국의 불교학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